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0일 서울 북한산 정릉탐방센터 앞에서 열리는 유승호 후보 지원유세에 앞서 등산객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예측불허 새누리 과반 무난

광주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강원일보, 경인일보, 경남신문, 전북일보 등 전국의 8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3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전국 지역별 판세를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여야 후보간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지역별 판세를 요약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옥수역에서 중구성동구유세에 출마한 정호준 후보의 지원유세 중 물러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與多野...49곳 중 24곳 대혼전

서울 여야가 최대접전지로 꼽은 서울은 10일 현재 대혼전이다. 49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곳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합지역이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에 따라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유력하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과 새누리당의 공천과동에 대한 심판 여론의 강도가 관건이다. 여야 각 정당의 자체 판세분석과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현재 새누리당 16곳, 더불어민주당 7곳, 국민의당 1곳, 무소속 1곳의 우세가 예상된다. 이 밖에 24개 선거구에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갑, 종로, 중성동을, 성북을, 강북갑, 도봉을, 서대문을, 마포을, 강서을, 영등포을, 동작을 등 16개 지역에서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강남벨트'가 중심이다. 더민주는 강북을, 마포갑, 구로갑·을, 관악갑, 은평갑, 금천구 등 7개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나선 노원병 1곳만 우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 지역이 안정적인 우세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신문=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여 32곳 우세...15곳 초박빙

경기·인천 경기 60석, 인천 13석인 경인 지역은 여론조사 지표와 현장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분열로 흩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표가 결집할 경우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 수도권으로 복상하는 '녹색 바람'은 지역구 선거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투표에선 기존 정당에 영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국민의당으로 몰리고 있어 비례대표 선거는 3당이 삼분하는 '황금분할'도 점쳐진다. 당 별로는 총 73개 중 새누리당이 32곳(경기 28, 인천 4) 안팎, 더민주가 23곳(경기 23, 인천 3) 안팎, 정의당은 1곳(경기 고양갑 심상정), 무소속도 1~2곳(인천 남을 윤상현)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 13석의 의석 중 새누리당은 최소 4석, 더민주는 최소 3석, 무소속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최대 의석인 경기도에선 새누리당은 최소 28석, 더민주 23석을 최소 의석으로 보고, 초박빙 10여 곳에 대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복합 선거구가 있는 수원, 안산, 남양주, 성남 등 대도시권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임박해 지면서 지지층이 서서히 몰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투표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경인일보=정의종기자 jeji@kyeongin.com

새누리 우세속 "뚜껑 열어봐야"

충청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지지도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후보가 거의 없어 개표 전까지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정당지지도는 다소 상승세를 보이지만, 우세를 장담할 수 있는 선거구를 찾기는 만만치 않다. 대전에선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3곳에서 새누리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나머지 4곳에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다는 게 중론이다. 충남에선 새누리당의 경우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자신하고 있다. 나머지 3곳은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반면 더민주는 아산갑을 제외한 천안과 아산 벨트에서의 강세와 '안(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남자'로 분류되는 박수현(공주·부여·청양)·김종민(논산·금산·계룡) 후보의 선전을 강조했다. 서산·태안과 당진도 접전중이라는 게 자체 분석이다. 충북에선 총 8개 선거구 중 더민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청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4곳에서 새누리당의 우세가 점쳐진다. 청주권 중에서도 상당구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3곳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간 접전이 펼쳐진다는 분석이다. /대전일보=성희태 기자

녹색바람에 더민주 '휘청'

전북 전북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텃밭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더민주 1곳, 국민의당은 3곳에서 우세하다. 6곳은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본보와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5일 실시한 뒤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더민주의 익산갑에서 이춘석 후보만이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거구가 국민의당 후보와 접전 지역이다. 국민의당은 군산(김관영)과 익산을(조배숙), 정읍·고창(유성엽) 후보가 더민주 후보를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주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가 더민주 최형재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관심 선거구인 전주병은 국민의당 정동영 전 장관과 더민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일보=박영민기자

더민주 복사상갑 전재수에 기대

부산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 지역은 새누리당이 12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6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무소속과 경합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가 경합 우세를 보이는 지역은 부산 북사상갑이다. 북사상갑에서는 새누리 박민식, 더민주 전재수 후보가 맞붙어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도가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새누리 손수조와 더민주 배재정, 무소속 정재열 후보가 3파전을 펼치는 사상은 무소속 우세지역이다. 장 후보가 선거 초반부터 앞서 나갔으나 여야 후보들이 점차 격차를 줄이는 모습이다. 새누리 경합 우세지역은 새누리 김척수, 더민주 최인호 후보가 대결하는 사하갑과 새누리 김희정, 더민주 김해영 후보가 대결하는 연제구다. 사하갑 김 후보는 선거 기간 내 앞서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오차범위 내에서 최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제구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이밖에 남구을과 기장군은 새누리 경합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 측은 새누리 하태경, 더민주 유영민 후보가 대결하는 해운대갑과 새누리 배덕광, 더민주 윤준호 후보가 맞붙는 해운대를 지역도 경합지역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일보=김수진 기자 kscii@busan.com

여 공천과동에 무소속 바람

대구·경북 새누리당의 '뒷받침' 대구경북(TK)에 부는 무소속·야당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9대 때 전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대구의 12개 선거구 중 6곳에서 야당·무소속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2석이 줄어든 경북 역시 13곳 중 2곳의 선거구에서 탈당과 무소속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새누리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을 통한 '안방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자신감엔 힘이 빠진 형국이다. 원인은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TK 시도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TK는 관창을 것이다"며 마구잡이로 휘두른 공천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 온 것이다. 새누리당이 꼽은 경합, 열세 지역은 단수추천, 우세추천 방식으로 후보를 뽑은 곳이 대부분이다. 10일 현재 대구는 수성갑, 수성을, 북구을에서 열세이며, 동갑과 달성군은 경합이다. 경북은 포항북·구미을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탈당과 무소속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무소속 유승민 후보를 포함하면 TK 8곳에서 끝까지 가뉘어 결과를 알 수 있는 대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야당 바람도 거세다. 수성갑과 북구을에서는 더민주 김부겸 후보와 더민주 비례대표인 홍의락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매일신문=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더민주, 김해을 유일한 우위

경남 각 당이 자체 판세 분석을 종합한 결과 경상남도 16개 선거구에서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가운데 정원 성상구, 김해 갑·을 등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새누리당은 8곳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 통영·고성에선 이미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다. 나머지 7곳은 경합 우세 4곳, 경합 2곳, 경합열세 1곳 등으로 봤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해 새누리 강기운 후보와 맞붙은 창원 성상구와 도내 유일 야당 의원인 더민주 민홍철 후보와 정치신인 새누리 홍태용 후보가 출마한 김해갑은 '경합'으로 각각 분석했다. '경합우세'는 창원 마산회원, 밀양·창녕·함안·의령, 거제, 양산을 선거구 등 4곳으로 봤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통폐합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밀양시장 출신의 새누리당 엄용수 후보가 컷오프에 반발해 새누리를 탈당한 무소속 조해진 후보에 비해 '경합우세' 것으로 전망했다. 더민주의 김해 2곳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 재선을 노리는 김해갑의 민홍철 후보와 김해을 김경수 후보도 우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해을, 양산 등 속칭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경남신문=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새누리 8곳 싹쓸이 목표

강원 강원도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의석수가 9석에서 8석으로 1석 감소했다. 8석 전석 석권이 목표인 새누리당은 일부 선거구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세를 앞세워 4곳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1곳은 무소속 후보 강세다. 나머지 3곳은 새누리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과 무소속 후보간 혼전이다. 이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내 KBS, MBC, G1강원민방이 공동으로 지난 3~5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강원지역 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지역은 4곳(춘천, 강릉,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었다. 3곳(원주갑, 원주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위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접전이다. 1곳(동해·삼척)은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섰다. 더민주의 최소 4석 이상을 확보, 지난 19대 총선 설욕전에 나섰으나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야성이 강한 원주갑, 을 선거구 2곳에서 새누리과 접전을 펼치며 대역전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 모두 원주지역 2개 선거구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곳에 조직력과 지원유세를 쏟아붓고 있다. /강원일보=김석민기자 skm@kwnews.co.kr

서울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상가 & 제척부지 NPL매각
상가 분양가 및 NPL매각 채권최고액 330억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차임 1억5천만원 가능
- 대출금 이자를 뺀 월 수익 약 1억 가능

제척부지(보상가) NPL매각
채권최고액 270억

- 하월곡 제1구역 재건축시 보상가격 약 250억~270억가능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한화 컨소시엄)완료
- 상가, 제척부지의 NPL 매각 금액은 상담 시 공개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3천 ~ 9억8천만원)
- 대출받지 않고 전세 놓으면 1억 ~ 2억원으로 소유
- 현재 즉시입주 가능(선착순 동 호수 지정)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